

Magnetic attachment를 이용한 overdenture

박은주, 진태호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치아가 상실되면 치조골의 흡수 및 감각기능, 교합력의 저하 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환자의 구강내에서 몇 개의 치근이 존재한다면 치근의 발치보다는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Overdenture는 구강내에 남아있는 잔존 치아가 지대치로 이용하기에 부적당할 경우 치관을 잘라내고 치근만 남긴 상태에서 근관 치료 후 치근을 이용하여 총의치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치근을 남김으로써 치조골의 보존 및 지지력의 증가, 환자의 정신적 안정감, 잔존 치아의 치근막의 감각 수용기능에 의한 저작기능의 향상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잔존 치근이 치주 질환이나 우식등에 의해 발거될 경우 총의치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verdenture의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임상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유지장치로는 Stud attachment, Bar attachment, Magnetic attachment 등이 있다.

이중 Magnetic attachment는 마모나 파손되는 부위가 없이 장기간 사용하여도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고 의치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관리하기 쉬우며 지대치에 유해한 측방압이 무리하게 전달되지 않으며 특수한 기구와 기술이 필요 없고 기공작업이 쉬우며, 디자인이 간단하여 다른 유지장치와 병행할 수 있다.

본 증례는 소수 잔존치근을 발거하지 않고 Magnetic attachment를 이용한 overdenture로 수복한 경우로 의치의 유지와 지지 및 안정성에 있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